

<컴패션 뉴스레터 1960년 1-2월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들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실 날을 다시 한번 미루시고, 1960년 새해도 주님의 한 해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시편 90:12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또한 잠언 27:1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 니라”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저는 11월 8일 일요일 일리노이주 올니(Olney)에서 영적 열매가 풍성한 15일간의 전도 집회를 마쳤고, 클리퍼드 샌딘(Clifford Sandin) 목사님 부부와 매일 소중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그의 온 가족이 저의 부모님을 뵈러 농장을 방문하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일리노이주 그린빌(Greenville)의 한 고등학교에서의 많은 인파가 몰린 특별 집회에서 그들과 함께 축복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올니(Olney)에서의 집회가 끝난 후, 주님은 아침 식탁에서 갑자기 샌딘(Sandin) 형제를 당신 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주님을 위한 그의 노고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므로 “지혜에 마음을 두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컴패션>을 읽으면서 이 작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일을 할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일을 계속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기독교인의 할 일이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8:19-20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저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960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구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헌신을 새롭게 하도록 도와십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사역이 크게 성장(현재 12개 보육원에서 41개 보육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봄 전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3월 초에 도착할 예정이며, 대략 10주 정도 있을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직원들 및 이사회와 함께 각 보육원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 원장님이 모든 보육원의 주요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3일 간의 부흥회를 갖자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현지 전도사, 문서 선교 종사자 및 학생들과도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

어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새로운 보육원에 대한 지원 요청을 많이 받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경제적으로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할 것입니다. 자립 프로젝트의 문제는 리더들과의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종 계획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에버렛 스완슨 올림

힐사이드(Hillside) 보육원이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갖게 됩니다.

부산의 힐사이드 크리스천 보육원(Hillside Christian Orphanage)이 새로운 장소에 신규 건물을 건축 중입니다. 사진은 미국 1AFK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자료 중 일부이며, 약 2,500달러의 가치로 평가했습니다.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는 4,000달러를 지불하고, 토지와 추가 자재 및 인건비를 지불하기 위해 1,600달러를 선불로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사진에서 우리의 남자 청소년들이 시멘트 벽돌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헌병대가 몇 년 전에 지은 아주 작은 목조 건물입니다. 원장님은 온 가족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간 임성운(Lim Sung Un) 씨입니다. 그는 이 보육원에 있는 68명의 소중한 생명을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현재 우리 41개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어린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보살핌을 잘 받고 있으며, 의복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도 잘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의 소중한 고아들이 한국의 추운 밤거리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긍휼하심(Compassion)에 대해 배우지 못한 채 거리에서 방황하고, 구걸하고, 도둑질하고, 굶주리고, 죽어

¹AFK 프로그램: Armed Forces Assistance to Korea(미군대한원조)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베다니 보육원(Bethany Home)은 몇 달 전에 시작되었고, 이와 같은 어린이들 302명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 3개월 동안 시작된 두 곳의 다른 보육원에서는 100명이 넘는 거지 소년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우 열악한 시설이지만, 적어도 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자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전도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앞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설교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라이스(Rice) 목사님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재정적 지원과 후원자가 있다면, 아직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더 많이 데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필요와 기회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알기만 한다면,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어린이를 후원할 수천 명의 미국과 캐나다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도록 알려 주십시오."

답요 배송 소식

²케어(CARE)를 통해 답요를 주문한 후원자들 중 일부는 왜 아직 케어(CARE)에서 검증한 영수증이나 보육원으로부터 사진을 받지 못했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의 끔찍한 태풍 이후 도움이 절실해지면서, 한국 내 케어(CARE) 물량이 완전히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곧 소식을 듣게 되실 겁니다. 수백 개의 답요가 배달되었지만, 일부는 아직 배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보육원으로 배달된 싱어(Singer) 재봉틀 세 대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아래 사진은 진해(Chin Hae) 보육원의 어린이들이 100개의 케어(CARE) 답요를 받은 모습이며, 오른쪽 끝은 의학 박사인 이(Lee) 원장님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우리의 모든 고아들과 과부들, 그리고 한센병 환자의 자녀들에게까지 찾아옵니다!

각 보육원에서 저희에게 보내야 하는 월별 소포 보고서를 실제로 매일 받는 것은 얼마나 짜릿한 일인지 모릅니다! 각 보육원의 원장님은 소포 수령일과 기부자 성명, 후원자에게 보낸 감사편지와 사진을 발송한 날짜 및 그 내용을 목록으로 만들어 저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후원자들은 소포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밖으로 나가 물건을 사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연금을 받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금을 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소포는 먼저 세관 직원이 개봉하고 다시 포장하여 보육원으로

²국제 원조 구호 기구(CARE, Cooperate and Relief Everywhere): 1940년대에 교전국의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민간 구호 단체이다. 현재는 10여개국의 멤버들로 '케어 인터내셔널'이 결성되어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_%EC%9B%90%EC%A1%B0_%EA%B5%AC%ED%98%B8_%EA%B8%B0%EA%B5%AC).

보냅니다. 우리의 요청에 따라 즉시 개봉함으로써 그들도 도둑 맞을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 즉시 필요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옷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보관해 둡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크리스마스 중 가장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보육원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경을 암송하고, 연극을 하는 등 다양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난생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온 어린이들이기에 이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포를 보냈지만, 아직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후원자께서는 발송일로부터 최소 3개월은 기다려 주신 후에 보육원 원장님에게 직접 편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소포는 6주 안에 도착하지만, 간혹 4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 뒷줄 왼쪽에서 오른쪽: 고든 & 샤론 로니, 마이라 & 데이비드 스완슨
- 앞줄 왼쪽에서 오른쪽: 스완슨 목사, 폴, 조나단, 미리암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의 친구들과 지지자들은 종종 우리의 설립자이자 이사인 에버렛 스완슨의 가족에 대해 묻습니다. 스완슨 목사는 온 가족이 집에 모였던 12월 20일(실제 날짜는 16일)은혼식을 맞이했습니다. 스완슨 목사는 미국, 캐나다 및 해외에서의 전도 활동으로 인해 지난 7년 동안 가족과 오래 떨어져 지내왔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를 위해서도 여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가족, 집, 친구들 그리고 교회를 매우 사랑합니다.

스완슨 목사의 세 아들은 모두 미주리(Missouri)주 포트 레너드 우드(Fort Leonard Wood)에 있는 미 육군에 입대해 6개월간 복무한 뒤 육군 예비역으로 전역했습니다. 데이비드(David)는 벽돌공이고, 그의 아내 마이라(Myra)는 사무 비서입니다. 고든(Gorden)은 크레인 운전기사이고, 샤론(Sharon)은 ³컴토미터(Comptometer)의 계산원이었지만 이제 막 그녀의 부모에게 손주를 안겨주었습니다! 조나단(Jonathan, 잭(Jack))은 대학 2학년 때 "입대"했습니다. 폴(Paul)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들 모두 시카고 센트럴 애비뉴 침례교회(Central Avenue Baptist Church)에 다니고 있습니다.

스완슨 목사는 15세 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례교 총회(구 스웨덴 침례교)의 목사로 13년

³컴토미터(Comptometer): 고속도 계산기의 일종으로, 상표명이기도 하다(<https://en.wikipedia.org/wiki/Comptometer>).

동안 두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겼고, 1951년 하나님께서 그를 전임 전도자로 부르실 때까지 총회 전도자이자 이사회에서 맡긴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이제 전 세계에서 진정한 기독교 신자들과 더불어 초교파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한국 및 다른 나라에서의 복음전도여행은 그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을 두 번째로 떠날 때 한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스완슨 목사님, 당신은 이 땅에서 엄청난 필요와 비교할 수 없는 기회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질문을 통하여 스완슨 목사님의 심령을 깊이 불타오르게 하여 그는 "그 일에 대해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교 총회는 "구제"를 위해 그에게 1,000달러를 보냈습니다(그 이후로 여러 번 더 보냈음). 그는 한국 선교사를 통해 한국에 한 가옥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보육원(북평(Puk Pyung) - 페이스 앤 러브(Faith and Love))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돈을 보내 땅을 사고 숙소를 지어, 거리에서 거지 소년들을 데려왔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보육원(뉴 라이프 보이즈 앤 걸즈 보육원(New Life Boys and Girls Home))이 되었습니다.

1953년부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많은 선교사들의 도움과 수천 명의 관심 있는 개인들과 수백 개의 교회와 많은 교단의 소속 단체들의 신실한 지원으로 이 사역은 지금까지 성장하여 현재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는 41개 보육원에서 3,000명이 훨씬 넘는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개척자와 교회를 건축하는 전도사, 기독교 문서 번역가, 성경 연구소, 신학교 및 대학생들이 복된 복음을 전하고 온 땅에 새로운 자립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5)

새로운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는 후원자들을 통해 많은 한국 전도사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집사, 장로, 여전도회 및 안수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침례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 구세군, 성결교 등으로 모두 성경을 진정으로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실제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소책자를 배포하고, 성경을 판매하고, 가정을 방문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불교, 유교, 정령 숭배자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이들은 고아들과 마찬가지로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자는 그의 사진, 사역 이야기, 간증 및 우편 주소를 받습니다. 전도사는 매월 후원자에게 자신의 사역과 진행 상황, 새로운 개종자 등에 대한 보고서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들을 최대 2년 동안 돕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 대부분은 자립하여 작은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저희는 그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고 군용 텐트를 수십 개 구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 남성들 대부분은 매월 10달러를 받지만, 일부는 가족 구성상 20달러를 받아야 합니다(일부는 더 보태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독교 문서 번역 및 배포 사역에 종사하는 많은 남성, 기독교 사역을 준비하는 학생 및 순회 전도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할 여러분의 전임 선교사를 후원하기 원하시면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교 헌금이 이보다 더 빠르고 영구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일 곳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진)

전대선(Mr. Chun Dae Sun) 씨는 이곳에서 성공적인 전도사였습니다. 그의 훌륭한 새신자들과 2년 만에 비용을 지불하고 건축을 마친 그들의 예배당의 모습입니다.